

# 김승수 전주시장 “사람·생태·문화 공존 도시 조성”

‘취임 100일’ 인터뷰- 더 많은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에 박차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패기와 열정, 노련미까지 갖춘 ‘젊은 시장’으로 통한다. 재선에도 갖 지천명(知天命)에 들어선 그는 사람과 생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앞 대로를 ‘첫 마중길’로 조성한 그는 한 해 1000만명이 찾는 한옥마을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원도심으로 넓혀 관광 효과를 극대화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시장은 8일 “도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체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시스템을 만

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첫 결재는 ‘천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어떤 사업인가.

“푸른 녹음과 꽃이 어우러진 정원 같은 도시(가든 시티)를 만드는 것이다. 1000만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고단함을 치유하고 생태, 문화가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다. 전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가 부족하지 않지만, 최근 폭염과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

다. 이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숨쉬기 편한 맑은 공기 도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전주가 꼭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종합경기장 개발과 대한방직 부지 활용이다.

“두 곳은 성격이 다르다. 전주의 정체성이 깃든 종합경기장은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인접한 범원-검찰청 부지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팔복예술공장, 덕진공원, 동물원 등을 연계한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심을 대표하는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는 이미 조성된 교통, 환경, 주변상권, 정주여건 등 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 문화관광 자산인 전주한옥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도 필요한 시점인데.

“마를고 싶은 여행지로 만드는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화관광상품 개발과 한옥마을 내 인증제 도입, 쌍샘 우물 복원, 수공예 플랫폼 구축, 한옥마을 야외공연장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 공간적인



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생태·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도 가시화하고 있다. 세계일보=김동욱 기자 kdw7636@

# 임병택 시흥시장 “종합적 검토 88대 과제 선정”

‘취임 100일’ 회견- ‘5대 시정목표 공약’ 실현 추진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선 7기 취임 100일을 맞아 회견을 통해 시민권력이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를 이끌어 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흥시청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 시장은 “100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111년만의 폭염 그리고 태풍 ‘솔릭’에 따른 집중호우, 또 3년 만

에 발생한 메르스사태 등 많은 고비가 있었음에도 47만 시민이 보여준 관심과 응원은 시정 운영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지역회파 ‘시루’는 지역내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돼 시흥에서 돈이 돌고 지역 공동체가 강화되는 기분 좋은 연쇄효과로 돌아올 것이며 이러한 시루 유통은 진정한 시민자치로서 지역공동체의 힘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적인 문제인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 진입 문제와 국가와 지역적 문제로서 88만원 세대라는 청년의 고통,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시대적 과제로 놓여져 있다”며 “지역적으로는 원도심-신도심간의 격차 갈등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부분적 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단절성 등을 극복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하는 시민의 뜨거

운 갈망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새로운 시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부심을 주고자 시민의 생각을 옫이 민선7기 공약에 담았다”며 “5대 시정목표 공약인 시민이 주인 되는 시흥 등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담았던 시민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88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흥시청 제공

# 김병내 남구청장 “지역 경제·문화 중심도시 만들 것”

‘취임 100일’ 회견- 주민과 소통 발로 뛰는 현장행정 강조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연소 기초단체장이다. 그에겐 항상 ‘청년 단체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김 청장은 젊은 구청장답게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다. 책상이 아닌 발로 뛰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펴고 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에서 국정 경연을 비롯해 국회, 중앙정부와 두꺼운 인맥을 쌓고 있다. 그는 9일 “이런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남구를 경제와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 후 100일간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민선 7기 취임식을 앞두고 태풍 뿌라베룬이 북상하자 취임식을 취소하고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또 8월 말 기록적인 폭우로 백운광장 주변 등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그때도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침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광주시 재난 관리기금 40억원을 확보해 하수도 관로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지금까지 LH와 연관된 집단 민원 3건을 해결했다. LH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서로 양보를

얻어낸 게 주효했다.”

“남구 발전의 새 성장 동력은.

“광주 남구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와 인접해 광주-전남 상생발전 핵심지역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고려해 남구와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에너지 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촌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에너지밸리 국가산단에 국내외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 밸리 및 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국도 1호선 주변에 에너지 관련 시설을 집적화해 상호 발전하는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송암산단을 문화특

구로 조성해 지역경제 동력으로 삼겠다. 정보문화진흥원과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등을 묶어 송암문화콘텐츠 벨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문화교육 특구로 지정된 남구를 명품 교육도시로 육성할 생각이다.”

“남북 교류사업과 국비 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분단의 상처를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주 자치구 최초로 남북 교류협력팀을 신설해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북 공동응원단을 시도 하고 있다. 이른바 ‘광주형 남북 교류사



취임 100일을 맞아 김병내 광주남구청장이 그간 소회를 밝혔다. 광주남구청 제공

업’을 본격 추진해 볼 생각이다.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중앙정부와 폭넓게 쌓은 인맥이 큰 도움이 됐다. 세계일보=한현욱 기자 hanshim@



**YONG PYONG ALL SEASONS RESORT**

**1년내내 사계절 프리패스!**

**ALL FREE PASS! 왕처럼 누린다!**

**18/19 용평리조트 왕중왕 시즌권**

스키시즌권 하나로 사계절을 용평에서 즐기자  
국내 최대급이 관공제이름카, 따뜻한 실내 워터파크가 무림!

18/19 WINTER SEASON 시즌권 1차 판매 오픈